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방심운전 엄중 단속 발표

뉴욕주 경찰, 현지 사법집행기관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엄중 단속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뉴욕주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티켓 918% 증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미국 방심운전 인식 제고의 달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방심운전 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라는 이름의 이번 엄중 단속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검문소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특별 단속 활동입니다. 기초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뉴욕주 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티켓이 918% 증가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티켓 발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2011년부터 문자 메시지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티켓 발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심운전은 위험하며 불법입니다. 이번 엄중 단속으로 뉴욕주에서 운전 중 통화나 문자 전송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고자 합니다. 뉴욕주 경찰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은 도로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비극과 슬픔을 막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전자 기기를 내려 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전통적으로 4월은 봄철 운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극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은 기타 차량 및 교통 법규 위반과 함께 방심운전을 엄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운전 중 도로 주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규 애니메이션 공익광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도로 교통 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5년 전국적으로 3,477명이 방심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약 391,000명이 방심운전자 관련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 관리 연구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뉴욕주에서 “운전자

부주의/주의산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된 사고로 인해 160명이 사망하고 3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상기 보고서는 경찰 발표 치명적 상해 사고의 21-22%가 “운전자 부주의/주의산만”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 주립 경찰 총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및 문자 메시지 사용은 교통 사고, 부상 및 사망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주 경찰은 뉴욕주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련 법률을 항상 집행하고 있지만, 경찰관들은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캠페인 동안 위반자를 엄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관들은 운전 중 휴대 기기 사용 운전자를 더욱 쉽게 식별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표식된 주 경찰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CITE 차량을 이용하면 경찰관들이 방심 운전 위반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DMV 수석 부커미셔너이자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의장 대리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운전 시 끔찍한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또는 보행자에게 평생 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와 같은 시행 및 인식 고취 캠페인을 통해, 뉴욕주는 방심운전 대처에 있어 지속적 진보를 이뤄 왔습니다. 우리의 사법집행관들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매년 뉴욕주의 교통 안전 법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집행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캠페인 동안, 뉴욕주 경찰은 방심운전으로 인해 발부된 과태료 티켓 2,000여건을 포함해 18,000여건의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발부된 티켓 수는 운전 중 핸드프리 장치 없이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 기기를 사용한 것을 합친 숫자입니다.

뉴욕주 방심운전 과태료 티켓 발부 수:

연도	휴대폰	문자전송	총 발부서
2016*	113,116	92,097	205,213
2015	132,245	84,794	217,039
2014	165,087	76,208	241,295
2013	208,508	55,718	264,226
2012	217,329	30,370	247,699
2011	248,801	9,043	257,844

* 2016년 최종 집계는 2017년 5월에 제공됩니다.

현재 뉴욕주 법은 방심운전에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최초 위반 시, 최소 벌금은 50달러이고 최대 벌금은 200달러입니다.
- 18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벌금은 250달러로 인상됩니다.
- 18개월 이내 세 번째 위반 시, 최대 벌금은 450달러로 인상됩니다.
- 수습 및 미성년 운전자는 최초 위반 시 120일 면허 정지에 처해지며,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 시 1년간 허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단속 활동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www.safeny.ny.gov를 방문하세요. 뉴욕주의 휴대폰 및 문자 메시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mv.ny.gov/cellphone.htm. 방심 운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istraction.gov.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